

4) 돛대(짐대)세우기

용수동에 집대고리(짐대골)란 범죽마을이 있었다. 47호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옥천의 상류골에 있으며 배의 형국을 지닌 곳이다. 예로부터 배의 운행 곧 마을의 삶을 순조롭게 꾸려나가기 위해 매년 대보름에 돛대(범주)를 세워 마을의 번영과 풍년을 기원했다. 돛대를 세우지 않으면 마을에 우환이 생겨 도깨비들이 집에 불을 지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정월 14일 아침나절에 긴나발(띠띠)를 불면 온 마을사람들이 마을 앞에 모여 돛대봉이나 대판리 술밭에 가서 가장 크고 긴 돛대 3개를 메고 온다. 돛대를 내릴 때는 끌어당길 수 있도록 새끼로 앞목을 묶고 옆 받침 기둥을 넣어서 어깨에 메며 뒤편에서는 옆 기둥을 아래로 낮추어 손으로 잡고 내린다. 이때 굵(사물)을 치고 거의 외설적인 선소리에 맞춰 흥겹게 돛대를 내린다. 하나는 마을 앞의 내를 건너 짐머리에 세우고 또 하나는 마을 입구에, 나머지는 마을 앞 집대배미에 세웠다. 돛대 위에는 물오리를 올려놓고 그 입에는 가는 대살을 물려놓는다. 돛대를 내릴 때 불렀던 소리는 일정하지 않고 ‘어얼싸 더리덜렁’, ‘얼널러 상사디야’ 등을 불렀다.

(선소리)

앵무새 같은 시누 물에나 풍덩 빠져 죽지
낙자장사가 나를 흘려낸다
밤일 하는데는 봉알이 날개다
구정물통에 호박씨 떴다
과부요강에 똥이 동동 떴다

(뒗소리)

얼널러 상사디야
얼널러 상사디야
얼널러 상사디야
얼널러 상사디야
얼널러 상사디야

이런 소리에 굵을 치고 내려와서는 돛대를 메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밤샘을 한다. 이때에 아랫돛대와 윗돛대가 서로 맞붙어서 싸울 때도 있었다고 한다. 15일 당제를 마치고 온 마을사람들이 나와서 돛대제를 지내고 음복을 하며 굵을 친다. 돛대의 주위에 말뚝을 박고 왼새끼로 금줄을 치며 출입을 못하도록 한다.